

Atmosphere X II .

하늘의 능력은 미신적 신비주의와는 다릅니다.

1.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죄' 문제의 해결이다. 성경은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 자세를 취한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문제 해결서이다. 모든 문제는 인간의 죄악 이후부터 발생했다. 그 문제 발생의 대안으로 예수님으로 제시되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 하셨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연약한 인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를 하늘의 뜻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1)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세계란?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세계는, 이 땅에 적용되지 않는 미신적 영적 세계와는 다르다. 미신적 신비주의는 영적 세계를 인정하나, 그 주체를 귀신과 같은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돌린다(무당).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적 세계는, 모든 문제의 주체를 인간에게 둔다. 그래서 인간이 문제의 방관자로 여기게 하는 미신과는 다르다. 문제 해결의 주체자로서의 인간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삶을 사셨던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분리된 신들의 모습과는 다르다. 그 분이 인간이 되셔서 직접 해결의 주체가 되셨고, 하늘과 땅이 결코 분리되지 않았음을 말씀하신다.

(2) 영적인 일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귀신의 일이 아니다. 영적인 일은 영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의 일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말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추상적일 것 같은 영적인 일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사랑'을 통해 현실화 시킨다. 사랑에 근거하지 않은 영적인 일은 영의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에 뿌리를 둘 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능력이 이 땅에 실체가 된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영의 일을 이 땅에 실체가 되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13:1]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팽과리가 될 뿐입니다.

2.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하늘의 능력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하늘의 능력은 예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과시용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해결이 되었다.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했다. 자유하게 했다. 배고픔과 고통을 해결하셨다. 치유하고 가르치셨다. 이 땅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셨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능력이며, 기독교가 말하는 영적 세계의 본질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여하신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이다.

(1) 하늘과 땅의 원리

솔로몬의 지혜는 하늘로부터 부여된 능력이며,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되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방법을 하늘의 원리로 해결하기 원하셨다. 그러나 땅의 원리는 힘의 원리를 말한다. 즉, 이 땅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문제보다 더 큰 힘을 소유해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이 보장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위'에 관심을 갖는다. 지위가 주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지위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설명해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성경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말한다. 이것은 하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 존재라는 말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단순히 구원받은 존재로서의 구원이 아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회복이며, 하늘의 능력에 대한 권위의 회복을 말한다.

(2) 하늘의 능력이 주어지는 사람 - 성숙함

성숙함이란 '자신' 을 넘어선 타인 중심의 삶을 말한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이며, 타인 중심의 삶은 결국 다른 사람의 삶을 운택하게 한다. 솔로몬은 이 땅의 문제와 백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 를 구했다. 타인 중심의 존중하는 마음을 지닌 왕이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구한 하늘의 지혜가 아니었다. 성도는 눈에 보여지는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며, 그 진리는 타인을 유익하게 하는 사랑이다. (지혜와 계시의 속성)

3. 하늘의 지혜

(1) 이 땅을 통치하는 하늘의 지혜

[열왕기상 3:9]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4:29-30]

29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 같이 하시니
30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이 땅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위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셨다(29절).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받은 지혜의 속성은,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지혜가 어디에 쓰이는가? 주의 백성을 재판하는 일에,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쓰였다. 더 구체적으로, 왕의 신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솔로몬의 직업위에 임한 것이다. 왕은 나라를 다스리고 모든 송사를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솔로몬이 구한 영적인 지혜가 어디에 적용되었는가? 솔로몬이 살아가고 있는 삶에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라.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이 땅의 모든 지식과 이해를 넘어선 차원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는 그 당시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실제적인 능력이었다. 다른 사람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솔로몬의 지혜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솔로몬의 지혜는 실제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해주었다.

(2) 성숙함의 열매 지혜

[에베소서 1:9-10]

9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10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야 한다. 계시는 보이지 않았던 영역이 비추어지게 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요한계시록이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비추셨다. 그래서 요한은 보았다. 알게 되었다. 그런데 계시는 본 사람의 주관적 관점이 주가 될 수 있다. 계시는 모든 사람이 이해하기가 어렵다 (요한 계시록의 해석이 다르다).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함께 구하라고 말씀 하셨는가?

지혜는 무엇인가? 지혜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다. 이 땅을 통치하는 능력이다. 솔로몬의 지혜는 분별과 판단을 했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의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지혜는 주관적인 계시를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다. 계시는 하늘을 말한다면, 지혜는 땅을 말한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하늘뿐만 아니라 땅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함께 구하라고 하신 것이다.

(3) 지혜는 누구에게 열매 맺게 되는가?

영의 속성은 무엇인가? 온전함이다. 완성됨이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성숙함'의 단계라 말할 수 있겠다. 성숙함이란, 열매가 농익은 상태를 말한다. 열매의 맛이 나는 단계이다. 그래서 지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들에게 주어진다.

또한 지혜는 이 땅을 통치하는 하늘의 능력이다. 위로부터 부여지는 능력이다. 위로부터 부여지는 지혜에 이 땅의 경험이 만날 때 완성된다. 하늘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가 없다. 경험이란 무엇인가? '성숙함'이다. 분별하고 있는 상태이다. 솔로몬의 성숙함은 전도서를 보면 알 수 있다. 전도서는 무엇인가? 이 땅의 경험을 하늘의 가치로 재해석한 지혜서이다

(4) 삶에서 경험해야 하는 성숙한 지혜

ㄱ) 다윗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 반대하는 사울을 설득한다. 다윗이 사울을 존중함으로 설득하지 않고 자신이 전쟁에 나가야 하는 뜻만 이야기 했다면, 그는 절대 전쟁에 나갈 수 없었을 것이다. 분명한 하늘의 뜻을 반대하는 사울을 지혜로 설득한 것이다. 다윗은 어리지만 존중과 배려의 성숙함이 있었다. 성숙함의 열매가 지혜이다. 자신이 전쟁에 나가야 하는 이유를 사울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한다. 그리고 사울이 입으라고 건네 준 갑옷을 입어 보았다. 그 갑옷이 불편했지만 사울을 존중함으로 입어본 것이다. 허락을 얻어내어 전쟁에 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ㄴ) 아비가일

다윗의 아내 아비가일 또한 지혜로운 여인이다. 분을 내었던 다윗의 마음을 지혜로 진정시켰다. 이런 아비가일의 지혜는 파멸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을 돌파했고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의 아내가 될 수 있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바로 성숙함의 열매로 주어지는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이 본 것만 이야기 하기 때문에, 독선과 아집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이다. 지혜는 철저히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이 중심이 된 삶을 말한다. 이것이 성숙함이다. 다윗은 어리지만 자기중심에서 벗어난 성숙한 마음가짐이 있었기에 하늘의 지혜가 부여된 것이다. 그리고 그 지혜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도록 했다.

지혜는 계약과는 다르다. 계약은 성숙함이 필요없지만, 지혜는 반드시 성숙함을 전제로 한다. 살롬의 마음이 이루어진 사람을 말한다. 모든 폭풍우를 잠재우는 살롬의 통치이다.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라. 하늘의 능력을 덧입으라!